2026년 10월 4주차 평촌교회 소그룹 나눔지

리얼크리스찬 (7)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 - 11)

✝ 말씀 나누기

1.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새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경험은 없는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함께 기도하기

1.기도로 새 힘을 얻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며,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에 기쁨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봉사를 부담이나 의무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먼저 배려하고,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봉사하며, 삶의 자리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218장)



✝ 설교 요약하기

도입 |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거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당시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오해를 받으며 벼랑 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론 1 | 기도는 힘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때로 힘든 노동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수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힘을 빼는 자리가 아니라 힘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넘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론 2 |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새 힘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가족과 일터의 동료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마음이 팍팍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다가 쉽게 정죄하고 남을 탓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정죄하는 말과 남을 탓하는 말이 자꾸 흘러나온다면 지금 우리 마음에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죄와 분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인 방패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배신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요셉의 사랑이 있었기에 야곱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감싸 안아야 합니다.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두 팔 벌려 환대하며 손을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본론 3 | 봉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섬김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쁨으로 음식을 나르고 섬기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봉사는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욥바의 여제자 도르가는 작은 바느질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과부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주며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를 섬겼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 하나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힘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흘러넘치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섬김의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저를 놓아주고,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결론 |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
기도는 하늘의 힘을 채우는 자리이며,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봉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